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복지부서 조직개편 전면 재검토하라

- 민선 7기 조직개편에 따른 사회복지계 성명 -

민선 7기 도정의 출범은 우리 사회복지계에 새로운 기대를 안겨 주었다. 원희룡 지사의 후보시절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분리하겠다는 공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일부 기능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보건복지여성국 산하에 1개 과가 늘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지난 6일 입법예고 되고 언론을 통해 알려진 민선 7기 도정의 조직개편안은 실망과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노인장애인복지과를 각각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했지만 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개편안이기 때문이다.

새로 신설되는 노인복지과는 기존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노인복지계와 노인요양계를 통합하였고, 현재 주무과(主務課)인 복지청소년과는 폐지함으로써 복지정책과 생활보장 업무를 노인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기형적인 업무분장을 초래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복지과는 기존 장애인복지계, 장애인자활계에 장애인지원계를 추가하여 신설된 것으로 이는 노인장애인복지과 분리라는 도지사 공약 이행을 위해 사회복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철학 없이 단순히 퍼즐조각 맞추듯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제주도는 이미 초고령사회를 대비해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그만큼 요양과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홀몸 어르신들의 고독사 또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복지는 단순히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존립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사회복지의 패러다임은 시설중심에서 지역중심으로, 생애주기에 따른 보편적이고 맞춤형 복지로 급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국가복지정책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커뮤니티케어가 논의되고 있는 움직임 속에서 기본 주무과(主務課)를 폐지하고 ‘도’ 전체의 복지정책과 생활보장 업무를 노인복지과에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지난 해 사회복지예산 1조원 시대를 맞이하고, 더 나아가 사회복지예산 25% 수준을 요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복지계는 자칫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복지 수준을 역행시킬 수 있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힌다.

이에 우리 사회복지계는 조직개편안이 도의회에서 심의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이뤄지길 요구한다.

첫째, 노인장애인복지과 분리를 원칙으로 원희룡 도지사가 후보시절 공약한 ‘원희룡 공약 14호’ 로 제시한 내용 그대로 ‘노인장수복지과’ 를 신설하여 노인복지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도 전체의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주무과(主務課)를 존속시켜 제주특별자치도의 복지정책을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사회복지계의 의견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사회복지계가 모두 한마음으로 성공적인 민선 7기 도정을 바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사회복지현안에 대한 사회복지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

2018. 7.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및 15개 사회복지분야별 직능단체장 일동 (15개 사회복지분야별 직능단체)

제주특별자치도지역아동센터연합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제주지회,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 제주지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협회,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제주지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호남지부 제주지회